

한국 교회, 어디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가?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서 회개하라

- 요한계시록 2: 5 -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를 돌아보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극우 정치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는지 그 원인을 찾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교계전문가 6명의 진단과 참석자들의 토론을 통해 한국 교회가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누적되어 온 원인을 찾고 이를 고쳐나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첫발을 떼는 이 공론화 과정에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옥성득

UCLA 교수
(1차 7월 14일)



박성철

하나세교회 목사
(2차 8월 4일)



백소영

강남대 교수
(3차 8월 18일)



권수경

일원동교회 목사
(4차 9월 1일)



배덕만

기독교연구원느헤미야교수
(5차 9월 15일)



장동민

백석대 교수
(6차 9월 29일)

일 시

2025년 7월 14일 ~ 9월 29일, 격주 월요일 19~21시

장 소

성락성결교회 801호 (성수역 1번 출구, 성동구 성수일로10길 33)

중 계

기윤실 유튜브 생중계  기윤실 

참가비

6만원 (회당 1만원, 기윤실 후원회원 50% 할인)

신청 및 문의

bit.ly/한국교회연속토론회

[연속토론회] “한국교회, 어디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가?”

12.3계엄 이후 한국 교회 행태에 대한 회개와 원인 규명을 위한 연속 토론회(6차)

┃ 주 최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 후 원 야다북스

┃ 발간일 2025년 9월 29일

┃ 편 집 이명진

┃ 디자인 김현아

주소 (04382)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202호

홈페이지 www.cemk.org 전화 02-794-6200 메일 cemk@hanmail.net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야다북스

6차 토론회 순서 및 내용

Ⅰ 사회 - 정병오 (기윤실 공동대표)

Ⅰ 내용

발제. 공적 영성의 재구성

4p

- 장동민 (백석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Ⅰ 질의응답 및 토론

[발제문]

공적 영성의 재구성

장동민 (백석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한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K 권사의 이야기다. 시골 출신인 그는 젊은 시절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였고, 좋은 교회와 진실한 목회자를 만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재물과 시간을 바쳐 교회를 섬겼으며, 유복하지 않은 삶 속에서도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며 자녀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냈다. 이제 70대 후반에 접어들어 교회 일에서 은퇴하고 한적한 삶을 살고 있다.

그는 가끔 나에게 전화를 걸어 불평을 털어놓곤 한다. 과거 젊은 시절의 신앙을 회고하며, 지금의 교회 생활은 미지근하고 지루할 뿐 진짜 신앙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영적 갈망을 채워줄 인도자를 찾았다며 흥분된 어조로 소개한 것이 있었다. 바로 전광훈의 유튜브 설교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광화문 집회에도 자주 참석하고, 그가 인도하는 교회의 수련회에도 다녀왔다고 자랑 섞어 이야기했다. 그는 그 집회와 수련회, 그리고 유튜브 설교를 통해 신앙이 다시 살아 있음을 느꼈다고 고백하며, 나에게도 설교를 들어 보라고 권했다.

영성의 부재 vs 왜곡된 영성

나는 K 권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첫째, 지금 한국 교회 쇠퇴와 퇴행의 근본적이며 현실적인 원인은 영성의 부재라는 사실이다. 많은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공동체가 되었기에, 성도들이 과거의 영성을 그리워하거나 왜곡된 영성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라. 주일 설교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밋밋하고 중립적인 언어로 채워져 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설교와 성찬식은 구원에 대한 설명에 그칠 뿐, 실제로 구원 사건을 일으키지 못한다. 설교 후 반쯤 손을 들고 거룩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반복적으로 드리는 찬양은 작위적이고 어색하다. 목회자들 자신부터 영적 갈망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은 듯하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출석 성도의 숫자, 헌금 액수, 영향력 있는 장로·권사와의 교제, 새로운 선교 프로젝트, 기독교 방송 출연과 유튜브 조회 수, 노회·총회 임원과 해외 선교지 방문, 유학 중인 자녀 걱정, 은퇴 후 대책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영적 갈망도 없고 에너지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래된 습관, 가족의 전통, 사회적 교류, 봉사활동의 즐거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직분에 대한 책임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회가 영적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왜곡된 영성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극우 기독교 집회에는 전통적 교회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강렬한 영적 에너지가 충만하다. 이 극우적 영성의 배후에 있는 신학에 대해서는 다른 강연자들이 상세히 분석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정리만 하고자 한다.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1970~80년대 한국 기독교의 황금기를 자신의 시간적 고향으로 삼는다. 천막을 치고 십자가만 걸어도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 민족의 광장 여의도에서 수백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렸다. 기독교는 반공주의와 산업화를 주도하였고, 비신자들도 이에 동조하였다. 이른바 ‘유사(類似) 크리스텐덤 시대’였다.

이 시대의 열광적 영성과 영광을 경험한 지도자들은 오늘날 교회의 쇠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과거의 성공이 너무나 영광스러웠기에 이후의 몰락을 인정하기 힘든 것이다. 이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영성을 상상하기보다, 시곗바늘을 과거로 되돌려 영광을 회복하려 한다. 집회에 참여하는 K 권사와 같은 어르신들은 한때 국가의 수호자이자 산업화의 역군이었으나, 이제는 그 명성과 영광이 사라진 채 가난과 질병 속에서 외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 그들이 보기에 현재 집권한 진보 세력은 반공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자이며,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이다. 이들의 좌절과 분노,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극우 기독교의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

성령: 에너지와 의미의 결합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성령을 “에너지와 의미의 결합(unity of power and meaning)”으로 정의하였다. 의미는 인간 존재와 역사에 방향과 목적을 부여하고, 에너지는 그것을 실현하게 하는 생명력과 힘이다. 의미와 에너지가 분리될 때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다.

먼저, 의미 없는 혹은 왜곡된 의미와 결합한 에너지는 인간과 세상을 파멸로 이끈다. 나치즘이 ‘민족의 순수성’이라는 왜곡된 의미로 엄청난 집단적 에너지를 동원하여 전쟁과 학살을 일으킨 것이 대표적인 예다. 오늘날의 극우적 광신주의 역시 정치적 이념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는 가짜 의미가 맹목적 영의 에너지와 결합한 것이다.

반대로, 에너지가 빠진 의미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형식적 예배, 희생 없는 신앙, 고상한 체하는 지성주의, 고답적이고 파편화된 신학은 아무리 진리에 기초한다고 해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의 방향을 바꿀 힘을 갖지 못한다.

한때 복음주의 교회는 영적 능력을 추구하고, 진보적 교회는 지성과 행동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 복음주의 교회는 역사 발전을 위한 행동에 앞장서지 못하고 오히려 반동적이며 반(反)지성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결과 많은 젊은 신학도들이 복음주의 교회를 부끄러워하며 사회참여의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과정에서 영성에 대한 강조가 약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대표적 사례가 기독교세계관 운동이다.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약점과 한계에 대한 비판은 이미 다양하게 제기되었으므로 여기서 모두 다룰 필요는 없다.¹⁾ 다만 이 글에서는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성령에 대한 관심을 거의 두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자기 체제에 대한 의심 없는 확신, 이를 뒷받침하는 닫힌 신학적 울타리, 객관성과 균형을 중시하는 학문적 방식 등이 결합하여 세상의 고통과 절박함을 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오순절과 성령운동에 대한 반작용 때문인지는 몰라도 성령에 대한 언급 자체가 드물었다. 나는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헌신한 국내외 학자들을 많이 만나 보았지만, 그 가운데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결국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교회 주변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일부 지성적 기독교인의 전유물이 되었다. 한국에서의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한국 사회의 모순적 현실을 개혁하기보다, 미국이나 네덜란드 학자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학문적 연구를 심화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았다.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한국 지성인들이 한국 교회의 쇠락을 염려한 지 이미 한 세대가 지났다. 그 논의를 정리한 책으로 2013년에 출간된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새로운 한국교회를 위한 20가지 핵심과제』가 있다.²⁾ 이 책의 20명의 저자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목만 훑어보아도 지금까지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1부 “근본정신 회복하기”에서는 신학적 빈곤, 반지성주의, 인문학적 감수성이 부족한 설교, 값싼 구원론 등을 다루었다.

●제2부 “교회 문화 직시하기”**에서는 교회의 세속화를 질타했다. 무속적·상업적 성령운동, 주일성수·십일조·교회 건물에 국한된 신앙, 맘몬 숭배, 왜곡된 신앙 언어, 교회 내 성차별, 쇼로 전략한 예배 등이 예시되었다.

●제3부 “구조개혁 시도하기”**에서는 메가처치 현상, 사제주의, 교회 세습, 목회자 납세, 신학교 구조조정, 교단 현실 등 교회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변화를 모색했다.

●제4부 “참여 방식 점검하기”**에서는 교회의 사사화(私事化)와 공적 영역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했다. 공적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종교를 무시하는 공격적 선교를 비판하고, 생태 문제와 통일운동 참여를 촉구하였다.

1)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대한 비판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마이클 고힌, 크레이그 바르톨로뮤, 윤종석 역, 『세계관은 이야기다』 (서울: IVP, 2011), pp. 292-302.; 신광은, “기독교세계관의 논리적 구조와 문제점들,” 『복음과 상황』, 2007년 8월호.; 장동민, 『대화로 풀어보는 한국교회사 2』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pp. 380-386 등.

2) 강영안 외 19명,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새로운 한국교회를 위한 20가지 핵심과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이후에도 한국 교회를 비판하며 대안을 찾는 운동이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미셔널처치 운동과,³⁾ 공공신학이다.⁴⁾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에 기고한 신학자와 저술가들은 모두 한국 교회의 성과 개혁을 주장해 온 대표적 지성인들이다. 이들의 분석은 과학적이고 태도는 진지하다. 그러나 그 글을 읽으면서 나는 늘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다. 그 주장들이 옳다는 사실은 분명하나,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 내기 위해서는 힘, 곧 영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론적 정합성을 가질 뿐 아니라 체험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세련된 신학 이론으로 무장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자기 죄와 욕망을 이길 영적 능력이 없다면 그 신학은 쓸모가 없다. 강력한 영의 도움이 없이는 계급적 한계를 넘어설 용기도 얻기 어렵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경험을 가능하게 하지 못하는 신학은 적실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한국 교회의 잘못을 진단하고 미래를 기획하는 학자·목회자·운동가들의 노력이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성령으로 돌아가자

다시 탈리히로 돌아가 보자. 아니, 탈리히까지 갈 것도 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영성의 근원은 성령이며, 성령은 결코 반지성이 아니다. 그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요 14:17; 16:13). 동시에 그는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그의 능력으로 용기와 삶의 에너지를 얻는다.

따라서 지성적이며 합리적인 사람이 영성을 멀리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맹목적 영성, 혹은 왜곡된 의미와 결합한 영성이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성경적 기반을 가진 영성, 성령께서 가르치시며,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와 사회를 살리는 힘 있는 영성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분명해진다. 성경적이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우리 시대를 살리는 영성이 무엇인가? 새로운 영성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과거 한국 교회가 진정한 영성을 누리던 때가 있었다면,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논의의 장(場)을 여는 뜻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려 한다.

3) 미셔널처치 운동의 창시자 레슬리 뉴비긴의 책들이 다수 번역되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는, 홍병룡 역,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서울: IVP, 2007)이다. 이외 우리말로 번역되어 많이 읽힌 책으로서, 마이클 프로스트, 앨런 허쉬, 지성근 역, 『새로운 교회가 온다: 문화 속에 역동하는 21세기 선교적 교회를 위한 상상력』(서울: IVP, 2009) 등이 있다.

4) 차정식, 『예수, 한국사회에 답하다: 우리 시대 23가지 쟁점과 성서적 해법』(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미로슬라브 볼프, 김명윤 역, 『광장에 선 기독교: 공적 신앙이란 무엇인가?』(서울: IVP, 2014); 『인간의 변영』(서울: IVP, 2017)

1. 교회에 갇힌 영성 vs 세상을 섬기는 영성

초기 한국교회: 세상을 위한 영성

초기 한국교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던 교회였다. 그 역사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온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예가 1907년 대부흥운동이다. 이 운동의 결과로 기도와 전도에 헌신하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사회 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죄를 지은 대상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금전적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이를 보상하는 작은 화해 운동이 일어났다. 선교사와 한국 교인들 사이의 위화감이 제거되고 상호 신뢰가 깊어진 것도 그 결과였다.

회개와 변화 운동은 점차 사회 문제로 확대되었다. 신분 제도가 공식적으로 철폐된 것은 동학농민 혁명의 결과로 단행된 갑오개혁(1894년)이었으나, 오랜 세월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신분제가 하루 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다. 기독교인들의 반봉건적 사회 개혁 열망과 부흥운동의 영성이 개혁의 에너지가 되었다. 부흥회 다음 날에는 전날의 회개를 돌아보는 사경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조혼, 교육, 청결, 흡연과 같은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며 도덕적 기준을 세워나갔다.⁵⁾

부흥운동은 민족운동에도 큰 활력을 주었다. 학계 일각에서 부흥운동이 한국교회 비(非)정치화의 배경이라는 견해가 있었지만, 이는 수정되어야 한다. 오히려 부흥운동은 민족의식을 강화하였다. 영적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의식이 계발되고, 상황을 이해하며 헤쳐 나갈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된다. 당시 조선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은 일제의 침탈이었고, 기독교인이 이 문제에 눈을 돌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3·1운동 민족대표였던 신석구 목사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라가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통해 희망을 찾았다. 목사가 된 것도 민족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목회 사역을 통해 민족 독립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3·1 만세운동 참여 권유를 받고 그는 두 가지를 고민했다고 한다. 첫째, 교역자로서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둘째, 교리상 용납하기 어려운 천도교와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는 문제였다. 그는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다. 마침내 “4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강토를 네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 힘쓰지 않는다면 더 큰 죄가 아니냐”는 음성을 듣고,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며 참여하였다.⁶⁾ 당시 기독교인들은 개인적 회개운동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신분차별 철폐운동으로, 다시 민족 독립운동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겪고 있었던 것이다.

5) J. Z. Moore, "The Great Revival," *The Korea Mission Field*, 1907. 8, p. 116. 서정민, “한국교회 초기 대부흥운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7호 (2007년 2월), pp. 97에서 재인용.

6) 신석구, 『은재 신석구목사 자서전』, 서울: 감리회본부교육국, 1990, p. 83.

교회중심주의 형성: 제1단계

3·1운동 실패 이후 1920~3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하던 초기 교회의 활력은 점차 변화를 보였다. 한편으로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민족운동의 주체였다. 상해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서도 기독교인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독립군의 무장 항일투쟁과 의열단 활동에도 기독교인이 다수를 차지했다. ‘실력양성운동’이라 불리던 학교 설립, 절제운동, 물산장려운동, 농촌계몽운동도 기독교인들이 주도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조선공산당이 창립되어 사회주의가 기독교 민족주의의 경쟁자로 등장했지만, 영향력에서 기독교를 능가하지는 못했다. 일제 말 전쟁의 광풍 속에서도 일부 기독교인은 일본의 국조(國祖) 숭배를 결연히 거부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교회는 대사회적 활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점차 교회 내부 중심으로 수렴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20년대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대형 교회들이 등장하고, 신학교와 중등학교 등 기독교 기관이 늘어났다. 외국 유학을 다녀온 신학자들도 귀국하면서 교회는 안정과 성장을 이루었으나, 동시에 제도화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났다. 교회 조직 유지에 급급하고, 지적 수준이 낮은 일부 교역자들은 맹신을 강조했으며, 미신적 부흥운동이 횡행했다. 일부 선교사들은 고압적인 태도로 한국인에게 형포를 부렸고, 교회는 사회 문제에 무관심했다. 교회는 초기의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으며, 많은 논객이 이 시기(1920~30년대)를 한국 기독교의 ‘위기’라 규정했다.

춘원 이광수는 그 대표적 비판자였다. 그는 1917년 잡지 『청춘』에 「금일 조선 야소교회의 결점」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기독교의 공헌을 인정하면서도 교회지상주의를 맹렬히 공격했다. 교인이 아닌 자를 악인으로 여기고, 세상 학문과 비종교적 사업을 천시하며, 교역만 성직으로 여긴다고 비판했다.⁷⁾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제강점기 한국 기독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신앙을 통해 민족독립을 추구하는 공적 성격을 유지하였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교회는 제도적으로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에, 교회중심주의에 빠질 여지가 적었다. 종교사회학자 트윌치의 분류에 따르면 당시 한국교회는 ‘교회’(church)라기보다 ‘분파’(sect)에 가까웠다. 한 지역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자체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 의미를 지녔다. 교회에서 이루어진 예배·친교·문화·전도는 사회적으로 혁명적 행위였고, 사회변화의 동력이 되었다.

7) 이광수 글에 대한 분석으로서, 채현석, “이광수의 기독교 시비론,” 『한국기독교사연구』 5호 (1985), pp. 21-23을 참고하라.

반공주의·산업화와 교회중심주의 영성 고착화: 제2단계

해방 이후 1970년대 말까지 이어진 냉전 시기, 한국 사회의 목표는 외적으로는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내적으로는 산업화를 이루어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한국교회는 이 시대적 과제 수행에 크게 기여했다. 반공주의와 산업화가 당대의 핵심 가치였다면, 기독교는 이 가치를 주도적으로 실천한 집단이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집단이었기에, 반공을 기치로 내세운 군사정권과 쉽게 동조할 수 있었다. 배경에는 미국의 존재가 있었다. 미국은 선교사를 파송해 기독교를 전해 준 나라일 뿐 아니라, 한국전쟁에서 수만 명의 젊은이를 희생시켜 한국을 지켜 준 혈맹이었다. 또한 미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자이자 한국 사회가 본받아야 할 모델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교회가 국가적 아젠다를 주도하던 이 시기는 교회중심주의가 고착화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북한에서의 반정부적 행동은 남한에서 불필요했는데, 이는 기독교 이념과 군사정권 아젠다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교회는 국가 권력에 순응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했다.

민주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교회의 한계가 드러났다. 보수 정권과 이념적으로 밀착해 있었고, 이권과 인맥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에 동참하기보다 거부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대신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만 몰두했다. 1970~80년대 민주화 시기에 기독교는 시대정신을 따라가지 못했다. 중국의 개혁개방, 베를린 장벽 붕괴, 미·소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반공주의에 집착했다. 해방 이후 30년간 기독교의 위상을 높였던 요인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기독교는 시대적 전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이러한 교회중심주의적 흐름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사례가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이다. 그의 교회론은 “평신도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한스 쿡과 헨드릭 크래머의 저서를 접하면서 발전했다.⁸⁾ 그는 또한 존 스토틀가 주도한 “로잔언약”의 통전적 선교 개념—복음 전도와 사회참여의 통합—을 받아들였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임을 강조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는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임을 역설했다. 그는 제자훈련을 단순한 교회 성장 전략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의 삶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신도를 목회의 동역자로 훈련시켜 전도와 소그룹 인도를 맡기는 방향에 집중하였다.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가 보여준 급진적 제자도의 길보다는, 전통적 교회중심주의적 틀 안에서 제자훈련을 전개한 셈이다.

8)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pp. 15-61. 한스 쿡, 정지련 역, 『교회』 (서울: 한들출판사, 2011); 헨드릭 크래머, 홍병룡 역, 『평신도 신학』 (서울: 아바서원, 2014).

교회의 시장화: 제3단계

1990년대 이후 교회중심주의는 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 사실 1970~80년대 민주화 시기에 교회가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은 소수였기에, 우선 복음을 전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있었다. 또한 구한말과 일제 시기에는 반봉건·반외세 운동에 앞장섰고, 산업화 시기에는 반공과 시장경제를 앞세워 국가 정책과 맥을 같이 했기에, 산업화가 낳은 구조적 악에 저항하는 신학을 정립하지 못했다. 게다가 보수적 기독교가 ‘자유주의’로 규정한 진보 진영이 민주화 아젠다를 선점하였기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다시 30년이 지났고, 한 세대가 바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한국 기독교는 과거를 반성하거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지 못한 채 교회중심주의를 고착화시켰다.

1990년대 들어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교회의 시장화였다. 교회는 시장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을 넘어, 시장의 일부가 되었다. 가시적 성장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우고, 예배당과 예배를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며, 인근 교회와 경쟁 관계에 들어갔다. 교회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대형화하고, 스타 시스템을 도입하며, 홍보와 마케팅에 몰두하고, 심지어 프랜차이즈처럼 확장되기도 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무한경쟁·승자독식의 구조로 들어서자, 교회도 예외 없이 이를 따랐다. 초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재벌기업가와 유사한 권위와 특혜를 누리며 차세대 지도자의 명예를 얻었다. 그러나 전도를 통한 새 신자 유입은 점차 줄어들었고, 대신 기독교 방계 기관들이 급증했다. 전통적인 노회·총회·신학교뿐 아니라, 기독교 언론·방송·출판사가 과도한 경쟁 체제로 들어갔고, 컨설팅 기관, 선교단체, 문화회사, CCM 제작사, 여러 갈래로 나뉜 연합단체, 교회 전문 법률사무소까지 생겨났다. 헨드릭 크래머는 이런 파생적 기관들을 “교회의 세계”라 부르며, 현실과 분리된 부자연스런 별도의 세계라고 지적했다.⁹⁾ 이 “교회의 세계”는 생계를 위한 일터가 되어 매우 세속화되었다. 성장이 멈추자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교계는제로섬게임에 빠졌다. 크고 작은 교회의 사역자들과 방계기관 종사자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위의 역사적 과정들을 거치면서, 교회는 스스로를 사회와 구별하는 데 익숙해졌다. 교회는 자신을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공간으로, 외부 세계는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의 영역으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최근 극우 기독교 세력이 “정교분리”를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로만 해석하고, 종교는 얼마든지 정치에 간섭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극단적 교회중심주의의 폐해라 할 수 있다.

9) 헨드릭 크래머도 이런 파생적 기관들을 “교회의 세계”라 부르고, 현실과 별개의 격리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부자연스럽게 생각하였다. 이 “교회의 세계”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매우 세속화되어 있다. (헨드릭 크래머, 위의 책, pp. 184-185.)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교회 영성은 초기에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었으나, 점차 교회 안에 갇히고, 나아가 시장화와 정치적 왜곡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섬기는 공적 영성이다. 공적 영성을 설명하기에 앞서, 한국교회 영성이 교회중심주의로 흘러가게 된 신학적 원인을 살펴보려 한다.

교회중심주의를 뒷받침하는 성령론

한국교회가 교회중심주의로 환원되는 길을 걸은 데에는 신학의 책임도 크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회론이 유일한 원인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무리한 일반화를 감수하고 말하자면, 대다수 신학교의 교의학을 구성하는 과목(loci)은 대체로 서론-신론-인간론-기독론-구원론-교회론-종말론의 일곱 가지로 이루어진다.

- 서론: 신학 방법론, 인간 지성의 한계,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 신론: 거룩하고 사랑이 많은 전능하신 삼위일체 인격 하나님
- 인간론(인죄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음과 마귀의 권세 아래 놓임
- 기독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대속과 하나님의 왕국
- 구원론: 구원 얻는 방법과 순서
- 교회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를 경험
- 종말론: 최후의 부활과 심판을 통해 구원의 완성

그렇다면 성령 교리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신론의 삼위일체론에서 성령의 신격과 능력을 다루지만 분량은 많지 않다. 성령의 사역은 주로 구원론에서 다루지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으로 설명된다. 특히 구원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신학은 구원의 순서마다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며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요, 구원 이후의 성화 또한 성령의 사역에 인간이 동참하는 것으로 본다.

20세기 초 출현한 오순절운동은 전통적 구원론에서 성령의 위치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 보며 성령을 논의의 중심에 놓았다. 개혁주의가 “구원을 주도하시는 성령”을 강조했다면, 오순절은 “구원 이후 능력을 주시는 성령”, 곧 두 번째 축복으로서의 성령 세례를 강조하였다. 20세기 내내 양 진영은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를 두고 신학적 논쟁을 이어왔다.

넓게 보면 개혁주의든 오순절이든, 성령은 주로 신자의 내면과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이해된다. 성령은 사도와 선지자를 감동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장로·집사 등 사역자에게 은사를 주어 교회를 보존하신다.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곧 기독론-구원론-교회론을 연결하는 분이 성령이며, 성령은 교회를 통해 충만히 역사하신다는 성령론이 한국교회와 신학교, 강단에서 가르쳐졌다.

이처럼 성령론이 기독교론에 종속되다 보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보조적 기능에 머무는 경향이 커졌고, 성령의 독자적 위상은 약화하였다. 성령의 사역이 교회 성장과 부흥, 교세 확장, 예배당 건축으로 환원되며, 교회 제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기능하기도 했다. 메가처치를 성령의 큰 역사 결과로, 그 지도자를 ‘성령의 사람’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생겨났다. 실제로는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거나 영적 성숙과 거리가 먼 경우도 적지 않은데도 말이다.

이런 협소한 성령 이해는 오늘 한국교회가 직면한 새로운 사회·문화적 도전에 응답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과학기술 문명, 기후 위기, 다종교 사회, 탈기독교 문화 속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내적 성장 담론에 머물고, 성령론은 공적 신학으로 확장되지 못했다. 오늘의 문제는 도덕적 타락이나 제도적 부패만이 아니라, 그 뿌리에 성령론의 협소화라는 신학적 문제가 놓여 있다. 교회가 사회 속에서 신앙의 공적 책임을 감당하려면, 성령론의 재구성이 필수적이다. 성령론을 기독교론-구원론-교회론에 종속시키지 않는 다른 전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방 신학의 상호내재 삼위일체론

성령론을 기독교론에 종속시키는 경향은 서방 신학의 특징이다. 원래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주후 381년)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고백한다. 그런데 후대 서방 신학은 성령이 ‘아들로부터도’(filioque) 나오신다는 표현을 추가했다. 이는 성부와 성자의 단일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였으나, 결과적으로 성령론을 기독교론 아래 두는 경향을 강화했다. 반면 동방은 성령이 오직 성부로부터만 나오심을 고백하여, 성부의 원천성(archē)을 천명하고 성령의 자유와 독자성을 강조했다.

서방은 예수 승천 후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 교회에 주심을 강조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성령은 성육신 이전부터 일하고 계셨다. 예수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에 앞서 성령을 받으셨다(사 61:1; 마 3:16; 행 10:38). 성령이 성자를 증언하는 영이기에 성령이 성자에 종속된 듯 보일 때도 있으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보더라도, 어떤 이들은 성령의 우선적 역사로 성자께서 인도되기도 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그 중심은 성자 예수)과 함께 일하시지만, 반드시 설교를 통해서만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믿든지 결국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된다. 결국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동방신학에 따르면 성령은 성자에게서 나오지 않으므로, 성자의 몸인 교회에 종속되지 않는다.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서 구속을 넘어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며, 예술·과학·정치 영역에서 역사하신다. 우주 안 모든 생명 활동의 주체이시며,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민족 공동체의 사고와 정신을 열어 주시는 영(몰트만)이다.

특히 동방이 강조한 ‘상호내재’(perichoresis)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삼위를 본질의 단일성만이 아니라 관계와 교제로 이해한다(지지올라스). 본질(substance)보다 위격(person)을 중시하며, 삼위는 고립된 세 존재가 아니라 사랑과 교통 안에 서로 내주하신다. 이를 교회론에 적용하면,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닮아 각자의 독자성을 지니되 상호 희생과 교제로 코이노니아를 이뤄야 한다. 더 나아가 현대 사회의 핵심 문제인 배제와 분열을 넘어, 차이를 인정하면서 일치를 이루는 포용의 신학적 토대가 된다(미로슬라브 볼프, 『배제와 포용』). 성령은 교회를 닫힌 울타리가 아닌 타자를 환대하는 열린 공동체로 변모시키신다. 이러한 동방신학적 성령 이해는 성령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에서도 일하신다는 관점으로 확장된다.

세상에서 일하시는 성령

성령이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하신다는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성령은 자연을 창조하고 지속하게 하는 영인데(시 104:30), 그 자연에는 인간도 포함된다. 인간의 육체적 생명은 성령의 숨결로 지탱되고, 인간이 만든 문명의 근원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신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본성, 내재한 도덕률, 작동하는 양심이 있다. 무엇보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 교제의 좌소(座所)인 ‘영’(靈)이 있다.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이 영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주에 가득한 영이신 성령은 언제나 모든 사람 곁에서 그들의 영에게 말씀하신다. 성령은 교회의 선포를 통해 구원으로 초청하실 뿐 아니라,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하고 예술적 영감, 창의성, 양심의 부름, 정치적 결단, 종교적 헌신을 일깨우신다. 특히 성령은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역사하여,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언어적 소통을 매개하며,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신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극단적 악으로 치닫는 것을 제어하고, 사회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는 것을 지연시킨다.

물론 성령이 모든 인간을 도우신다 해서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행한 일들이 항상 선한 결과를 낳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영이 성령에 무지하거나 그를 소멸하며(살전 5:19), 의식적으로 거부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의 감화로 이루어진 선행조차 인간의 자기중심성으로 오염될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은 자신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들은 사람들의 영을 자극하여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게 할 사명을 받았다. 목회자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신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 사랑의 봉사, 지혜와 열정, 고난 중 소망의 인내, 초월적 가치관을 목격한 이들이, 자기의 곁에서 일하시는 성령께 마음을 연다.

성령이 세상에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세상에서 이뤄지는 일들이 기독교적 의미를 지닌다. 성령이 교회 안과 신자에게만 내주하신다면, 비신자가 이룬 선한 일—수학·과학의 발견, 정치사상, 경제 발전, 예술적 창작—은 모두 무의미한가? 그 선의 출처는 무엇인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기에 무의미한가, 아니면 성령이 하신 일이기에 선을 포함하는가? 그렇다면 그 선을 어떻게 평가하고 비판할 것인가?

여기서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즐겨 인용한 일반은총 사상을 참조할 수 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All truth is God’s truth.)라는 경구는 종교개혁자 칼뱅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거듭나지 않은 비신자의 탐구에도 진리가 있으며, 그 진리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칼뱅에 따르면 진리는 언제나 영과 연결되어 있다. 어떤 학문적 이론이 진리인 것은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유일한 원천으로 인정한다면, 진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든 우리는 결코 그것을 거부하거나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영의 선물을 경시하는 것은 곧 영 자신을 경멸하는 것이다.”¹⁰⁾ 칼뱅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들의 예로 법학자, 철학자(자연과학자), 수사학자, 의학자, 수학자를 든다. 신자에게 임한 성령은 성결의 영으로 함께하시고, 비신자들에게는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부어 주신다. 결국 일반은총(common grace)은 일반 영성(common spirituality)의 동전의 뒷면이다.

비신자의 진리·아름다움·헌신·사랑을 성령의 역사로 인정한다면,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진다. 비신자의 업적은 그들을 구원이나 성결에 이르게 하지는 않더라도 공공의 선을 위한 필수 자원이다. 그것은 성령이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은 이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고 다스리신다. 물론 인간의 악과 성령 거부로 인해 모든 것이 공공선을 위해 쓰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선을 성경의 기준으로 분별해야 한다. 선한 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배척해야 한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말이다. 정치적 결단, 과학적 탐구, 예술적 창의성, 참된 교육의 영역에서 영성은 중요하며 그렇게 취급되어야 한다. 오늘 한국 사회가 물질주의에 치우쳐 영적 차원에 대한 관심을 잃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불행한 일이다.

둘째, 비신자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인은 비신자와 대화할 수 있고, 그들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을 공유하며,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 기독교인이 비신자의 업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양심적 행동과 용기에 도전받음으로 세계를 넓힐 수 있다. 사회의 많은 문제를 공론장에서 토론과 숙의로 다루며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한국교회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다. 목회자나 신학자 등 지도자들이 비신자에게 역사하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니, 대화를 단절한 채 자기 세계에 갇혀 있다. 자신이 아는 작은 지식, 혹은 SNS 알고리즘이 제공한 세계가 전부인 양 여긴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세상을 함부로 판단·정죄하고, 만기친람식으로 설교한다. 목회자의 말을 맹종하는 성도들은 ‘아멘’으로 호응하고, 틀렸음을 아는 지식인들도 “목사니까 그럴 수 있다”며 넘어간다.

신학자 역시 자기 진영의 교리와 신학을 강화하려는 독서에 머무르며, 새로운 세계와의 대화를 회피한다. 교계 안에는 닫힌회로가 돌아 편향된 정보가 재생산되고, 그 정보를 공유한 사람들의 대안 세계가 만들어진다. 교회는 사회에서 섬으로 남고, 그 섬 안의 기독교인은 늘 의인, 바깥세상은 암흑이 된다. 세상과 분리되어 있으니 죄의 자각도, 회개와 구원의 필요도 희미해진다. 그러면서도 내부 통제를 위해 이단 감별사와 ‘대심문관’(the Great Inquisitor)만 남는다. 이들이 정부와 사회를 판단하고 정치에 개입하려 들 때, 그것은 대한민국을 재앙으로 이끈다.

10) 『기독교강요』 II. 2. 15-16

파커 팔머, 교육에서의 영성

한국 사회에서 영성을 계발해야 할 여러 영역이 있지만, 그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분야를 잠시 언급하려 한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공동체주의가 가능하려면, 반드시 영적·종교적 각성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타자에 대한 환대가 중요한데, 이는 세속적 휴머니즘만으로는 어렵고, 내면 탐구를 통해 마음이 깨어지고 열려야 가능하다. 낯선 타자를 받아들이는 일은 위험하고 두렵다. 그 두려움을 넘어 지혜롭고 열린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 주변에 펼쳐진 신비에 마음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현실은 어떤가? 헌법 제20조 2항의 국교 금지 조항에 묶여, 공립학교 교육에서 모든 종교적 가치를 배제하는 세속 교육이 시행된다. 다수의 사립학교가 종교적 건학 이념 위에 세워졌으나,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공립화 정책으로 종교적 정체성을 잃었다. 채플과 기독교 관련 과목 운영은 ‘종교의 자유’ 인권 조항에 묶여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소수의 대안학교에서만 몇몇 과목이 ‘신앙과 학문의 통합’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질 뿐이다.

“교사들의 교사”로 불리는 위대한 교육학자 파커 J. 팔머도 정교분리에 입각한 미국식 교육을 비판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전통적 교과과정은 학생들의 내면 탐구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종교(기독교)를 무리하게 배제하면서 뿌리 잘린 나무가 되었다. 문학과 예술은 자아를 넘어 초월적 실재와 연결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정신의 역사 정도로 가르친다. 자연과학도 자연 세계에 대한 경외와 연결을 전제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 결과 미국의 교육은 인생의 목적, 삶의 고통과 두려움, 죽음의 현실, 미래의 희망처럼 정말 중요한 것들과 학생을 대면시키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다.¹¹⁾

팔머는 특정 전통 종교(예를 들어 기독교)를 학교에서 다시 가르치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신(神)의 이름을 언급할 수도,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핵심은 학생들이 내면을 탐구하도록 돕는 일이다. 그에게서 기독교의 십자가는 부서져 열린 마음의 상징일 뿐이다. 팔머는 특정 종교에 매달리면 그 종교에 길들여져 마음이 닫히고 삶의 범위가 좁아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¹²⁾ 이는 “종교 없는 영성”을 주장하는 오늘의 많은 영성운동가와 맥을 같이하며, 포스트모던 시대 다수에게 수용된다.

그러나 나는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팔머보다 더 낙관적으로 본다. 내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제도에 길들여지지 않을 만큼 긴장과 갱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언제나 죄인으로 드러난다. 우리의 전통·교리·열정·문화가 모두 하나님 앞에 별거벗듯 드러나 심판받는다.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자량이 심판받았고, 동시에 우리는 용서와 수용을 받았다. 이 십자가를 상징이 아닌 실재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타자에게 열린 마음을 갖게 된다.

11) 파커 J. 팔머, 김찬호 역,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 (파주, 글항아리, 2015), 특히 제6장을 보라.

12) 위의 책, pp. 236-237

물론 국교가 금지된 공립학교에서 기독교 전교(傳敎)는 불가하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르침을 공적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힘써야 한다. 교회는 진정한 영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기독교 대안학교는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사립학교는 건학 이념과 그에 맞는 교과과정을 시행해야 한다. 공립학교 교사는 신앙·양심의 자유에 따라 가르칠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이 실체가 되려면, 각 교사가 자신의 영적 세계로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어야 한다.

2. 체제를 초월한 영성 vs 체제에 밀착한 영성

성령은 체제를 형성하고 전복한다

앞서 성령은 의미와 에너지의 결합이라고 하였다. 성령은 인간의 영을 자극하고 인도하여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하신다. 성령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이념을 형성하고 구조와 체제를 만드는 일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속시키고 넓게 펼치기 위함이다. 체제의 핵심을 이루는 사상과 철학을 이념(이데올로기)이라고 한다. 성령은 처음부터 새로운 이념을 창출하시기도 하고, 기존 이념을 사용해 체제를 세우시기도 한다. 기존 이념 역시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성령의 인도로 형성된 이념과 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반영하며 세상을 섬기는 순기능을 가진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념과 체제를 이해하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에너지로 의미를 확산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인간의 영이 개입하기 마련이다. 성령의 인도 아래 체제가 만들어졌더라도, 타락한 인간이 개입하기에 그 체제는 태생적으로 역기능을 내재한 오염된 체제다. 시간이 흐르며 체제가 강화·경화될수록 순기능은 위축되고 역기능이 부각된다. 어떤 체제든 일정한 자정 기능이 있어 역기능을 최소화하려 하지만, 이미 무너짐이 시작된 체제의 붕괴는 시간문제다. 그때 성령께서 다시 개입하신다. 성령은 전복(顛覆)하시는 영이다. 기존 질서를 과감히 뿌리째 뽑아 체제에 봉사하던 이념의 죄악성을 드러내고, 인적 청산을 통해 사회를 뒤집으신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택하여 새로운 의미와 에너지로 충만한 영성을 부어 새 시대를 여신다.

“주의 영이 임하였으니...”

성경의 역사는 체제의 형성과 전복을 보여주는 성령의 사역을 전형적으로 드러낸다. 그 전형이 바로 예수님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메시아는 기존 체제를 전복하여 그 체제 아래 눌린 이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룬다.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 선언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 체제를 해체하시고, 힘의 평화를 추구하던 파스 로마나를 넘어서는 참된 평화와 자유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언하셨다.

성령이 ‘바람’으로 비유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령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체제를 형성하여 그 안의 사람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어 체제를 유지케도 하시고, 제도와 체제를 뒤흔들어 변혁을 이루게도 하신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요 3:8). 오순절에 천지를 뒤흔드는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방언으로 나타난 성령의 임재는 언어·민족의 경계를 전복하여 보편적 복음 선포를 가능케 했다. 또한 성령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에게 임하심으로 민족·문화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역사를 여셨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행 17:6-7)로 불렸다. 이 사건들의 공통분모는, 경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성령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역사다.

성령이 체제를 전복하는 영이라는 사실은 성령과 성경의 관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성령은 이미 기록된 성경을 해석하는 분이다. 그는 성경의 제1 저자로서 성경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자유자재로 성경을 해석하신다. 틀에 박힌 전통적 해석을 부인하고, 새로운 성경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 성령이 제시하는 성경해석은 체제를 지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체제를 근본부터 무너뜨린다.

고린도후서 3장은 기존 질서를 해체하는 성령을 증언하는 대표적 예이다. 구질서에 갇힌 자들은 얼굴에 베일을 쓴 듯 성경의 의미를 희미하게 본다. 그들은 글자에 집착하여 글자 배후의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구체제와 밀착한 잘못된 해석에 빠진다. 그들은 글자에 집착하여 성경도 죽이고 사람도 죽인다. “글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후 3:6)

그러나 바울의 해석은 자유로운 성령이 주도하는 전복의 해석이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후 3:17) 그는 유대교의 구질서를 넘어선 메시아 시대의 새로운 해석 공간을 열었고, 이를 가능케 한 분이 성령이었다.

오늘날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축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신학(神學)이다. 신학에도 두 기능이 있다. 기존 질서를 세우고 옹호하는 것과, 그것을 파괴하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학은 기존 질서의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보편 언어로 기술하여 누구나 이해하게 함으로 기존 질서를 유지하게 한다. 또한 다른 한 편, 시대의 변화를 식별하여 그 시대 정신에 맞는 새로운 답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학자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해석은 오늘의 문제에 답하지 못한 채, 죽은 전통을 공고히 하는 도구가 되기 쉽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스콜라 신학이 고통으로 죽어가는 세상에 대한 고민 없이 정립된 교리를 반복·증명·강화하는 것을 “영광의 신학”(theologia gloriae)이라 비판했고, 그 시대의 악을 분별하고 도전하는 신학을 “십자가 신학”(theologia crucis)이라 불렀다. 십자가 신학을 하는 자는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는 박해·고통과 내적 번민을 피할 수 없다. 루터는 신학의 역할이 체제 보존이어서는 안 되며, 체제를 초월하고 체제와 대결하는 신학이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요약하면, 성령은 체제·구조·이념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성령은 한 체제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자유로운 영이다. 우리 사회는 성령의 뜻에 따라 체제를 수호하고 또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영성이 체제와 거리를 두지 못하면 사회에 재앙이 임한다.

체제에 밀착한 영성

성령이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지 못하고, 체제에 밀착되게 하며 혹은 체제에 종속되게 할 때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 한 국가가 망하는 요인은 여러이나, 특히 정치와 종교가 구분되지 않을 때 치명적이다.

앞서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 구현을 위해 이념을 사용하신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로 체제 자체가 자기 보존을 위해 영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삶의 전 영역을 규정하는 정치가 기반을 공고히 하려 절대 이념 혹은 신앙을 요청하는 것이다. 평시에는 국민 통합을 위해, 전시에는 국민 동원을 위해 절대자의 이름과 영적 권위가 필요해진다.

동서고금의 독재자들은 신의 이름을 빌려 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아예 자신이 신이 된다. 히틀러 뒤에는 로마 가톨릭 추기경 아돌프 버트람과 개신교 ‘독일 그리스도인’(Deutsche Christen)이 있었고, 일본제국주의에는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가미의 아들이라 일컬어진 일왕이 있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 항의 시위에 군 투입을 거론하며, 백악관 인근 세인트 존스 교회에서 성경을 들어 보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자신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과 결부시키고 복음주의 지지를 견인하려는 의도였다. 이들은 양상은 다르지만, 사람들의 영성을 이끌어 전쟁을 수행하려는 매커니즘은 같다.

영성과 이념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결합하려는 경향이 있다. 종교는 현실 정치와 결합해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려 하고, 정치는 종교를 통해 절대성을 확보한다. 국내적으로 국민을 통합·통제하고, 대외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정신을 제공한다. 독재자에게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종교-정치 통합 체제는 가장 악한 체제로 판명되었다. 권력은 타락하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 종교와 정치가 결합한 거대 권력은 순수하게 유지될 수 없다. 국내적으로는 ‘사회통합’ 명분 아래 자유를 억압하고 비순응자를 격리하며, 대외적으로는 체제 전파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켜 치유 불가능한 상처를 남긴다. 무엇보다 이 체제는 무오류를 주장하며 종교적 헌신을 강요하기에 더욱 위험하다.

사례는 무수하나, 매카시즘이 대표적이다. 1950년대 냉전기 조지프 매카시는 정치적 반대파를 공산주의자로 몰아 공직·기업에서 축출했고, 뉴딜을 공산주의와 연계시키며 학계·언론·예술계에 ‘레드 스케어’(Red Scare)를 일으켰다. 그의 철저한 반공주의 배후에는 가톨릭 신앙이 있었다. 반공주의와 기독교 신앙이 합체된 것이다. 매카시는 미국 극우 정치-기독교 조합의 시초였고, 1980년대 뉴라이트-보수 공화당 연합을 거쳐 오늘의 트럼피즘으로 진화했다. 두 현상은 엘리트 혐오, 지도층 타락 비판, 공산주의 위협을 통해 대중의 공포와 지지를 동원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복음주의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에서 특히 위험하다.

우리나라의 극우주의 역시 기독교 신앙과 극단적 정치 이념의 결합 형태 중 하나다. 기독교 가르침이 정치 이념과 동일시되고, 나아가 한 인물로 체화되기도 한다. 극우 지도자는 자신을 절대 선으로, 자신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악으로 규정한다. 그는 추종 대중에게 무오류의 존재다. 흔들리는 대중에게 확신을 주는 대가로 권력을 얻는다. 체제에 밀착한 영성이 문제의 핵심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부흥운동

반대로 신앙이 체제와 결탁한 것이 아니라, 체제를 넘어 공공선을 낳은 한국적 전형이 있다. 바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형성한 1919년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이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은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체제의 출발이었다.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으로 불러야 마땅하다. 임시정부는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제를 택했다. 조선 왕조 500년의 기억과 대한제국의 왕족·귀족이 존재했음에도 왕정이 아닌 공화정을 선택한 것이다. 당시 민주공화제를 채택한 나라는 미국·프랑스·스위스 등 극소수였음을 감안하면, 이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민중은 목숨을 걸고 되찾은 나라를 다시 왕실에 돌려줄 수 없었다.

우리는 임시정부의 중심에 기독교적 영성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임시정부의 헌법적인 대한민국 임시헌장 전문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어 국내외가 힘을 모아 서울에서 거사를 일으킨 지 30여 일”이라고 선언한다. 3·1운동은 단순한 민중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일치 속에 일어난 운동이었다. ‘선서문’에는 “우리가 흘리는 한 방울 피가… 신(神)의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리라”고 하며, 제7조는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한다”고 천명한다. 당시 ‘신’은 기독교적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국가적 소명으로 확신했다.

임시헌장은 민주공화국과 기독교 영성의 연결을 분명히 한다. 남녀·신분 차별 없는 자유와 평등의 선언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다는 기독교 인간관에 뿌리를 둔다. 거기에 더해 개인이 공동체의 일부임을 자각하고 책임과 헌신으로 응답하게 하는 힘이 기독교적 영성이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을 통해 소명을 받고 자발적 희생을 결단했다. 기독교 영성에 뿌리내린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이다. 성령께서 조선 그리스도인과 민중 가운데 역사하시어, 조선왕조 500년과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절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형태뿐 아니라 그 기초에 깊은 영성을 지녔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공화국의 중심에도 기독교 영성이 자리해야 한다. 영성 없는 민주공화국은 뿌리 잘린 식물과 같고, 영성 없는 법치는 양심과 관용을 잃은 채 형식적 법 기술만 남는다. 영성을 잃은 정치인은 공익보다 당선을 목표로 삼고, 당선된 자는 다음 재선만을 목표로 삼는다. 영성을 상실한 보수는 가치를 지키기보다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반성의 영성이 없는 진보는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타인을 가르치려 하다 반감과 분노를 산다.

그리스도인이 민주공화국에 영성의 자양분을 공급하려면, 우리의 영성이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야 가능하다. 영성과 체제가 밀착하면 맹목적 에너지로 전락하여 스스로를 파괴한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는 보수, 심지어 극우와 결탁함으로 초월성을 잃었다. 참된 영성을 잃고 기독교 종족주의(tribalism)로 퇴화했다. ‘십자군’ 방식으로 ‘신의 나라’를 세우려는 망상을 꾸며, 교회 밖에 가짜 적을 설정하고 권력과 폭력을 동원한다.

교회는 선조들의 영성과 호홉하기보다 업적만 기념하며 신앙을 박제된 유산으로 전락시켰다. 자기 희생으로 공동체를 살리기보다 자기 확장에 몰두하며 공공성을 훼손한다. 영성을 잃은 한국교회의 미래, 그리고 교회의 자양분을 받지 못해 쇠약해진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위에 암운이 드리워져 있다.

『영성 없는 진보』

최근 진보 진영의 지식인 김상봉은 『영성 없는 진보』를 출간했다. 작은 책이지만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그는 여러 면에서 현재 한국 민주주의를 실패로 규정한다. 보수는 영혼 없이 욕망만 남았다고 보고 논외로 하며, 진보가 권력 교체에는 성공했으나 새 제도·문화를 뿌리내리지 못했고, 새 가치·공동체 윤리·시민 교육을 만들지 못해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진단한다. 원인은 “영성 없는 진보” 때문이다. 영적 기반 없이 제도 변화와 권력 쟁취에만 치중했기에 지속성과 생명력을 잃었고, 오늘의 인구 소멸과 같은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영성은 종교적 예전 참여만을 뜻하지 않는다. 나와 세계가 하나라는 믿음,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는 연민, 공동체 전체를 위한 책임과 희생 같은 신념과 태도다. 철학적 사유로도 ‘나와 세계가 하나’라는 인식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사랑과 희생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힘은 영성에서 나온다. 참된 영성은 의미(철학적 깨달음)와 에너지(실천)가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며, 이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그가 말하는 영성은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온 ‘의미와 에너지의 결합’으로 정확히 수렴한다.

나는 김상봉과 같은 철학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라 생각한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영성의 중요성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었다. 진보 지식인 서준식이 옥중에서 성경을 읽다 소외된 이의 해방자 예수를 발견한 예를 들며, 오늘 진보주의에 영성이 결여된 것을 안타까워한다.

체제를 초월하는 영성을 가르는 두 시금석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체제에 밀착된 영성과 체제를 뛰어넘는 영성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체제를 유지하려는 영성이라 해서 모두 체제에 밀착되었다고도 할 수 없고, 반대로 체제를 전복하는 자들이 반드시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도 아니다. 전혀 영적이지 않은 사람도 자기 신념으로 체제를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영성을 가르는 시금석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기존 체제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가?

어느 체제든 특혜를 누리는 이가 있는 반면, 체제의 모순으로 고통받는 이가 있다. 특권층은 현 상태를 영속화하려 애쓰며, 그 과정에서 불법과 카르텔을 만들고, 비싼 변호사를 동원해 무죄를 받아 내며, 학자를 불러 체제 안정을 정당화한다. 반대로 고통받는 이들은 정보와 힘이 부족해 늘 당한다. 때로는 가스라이팅되어 자기 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고통받는 이들은 영적으로 예민하다. 그들은 체제의 문제를 고민하고, 자기 가난의 본질을 숙고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다. 자신이 중병 든 것을 알고 의사이신 예수께 나아간다. 가난한 자 가운데 성령의 뜻을 깨닫는 이가 많다. 민중신학의 용어로는 “민중의 자기 초월”이 일어나는 것이다. 1970년대 민중운동가 전태일이 그 예로 자주 언급된다. 그는 개인의 불행을 사회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었다. 집단의 한(恨)을 체념으로 방치하지 않고 민중과 연대하여 해방운동을 주도하였다.

고통받는 자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 자기를 초월하면, 그는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는 사람이 된다. 함석헌은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에서 당시 조선을 “동네 건달에게 능욕당하고 길바닥에 쓰러져 힘없이 우는 버림받은 처녀 아이”에 비유했다. 그는 우리 민족의 자랑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마침내 조선이 인류 역사에 남긴 유산을 ‘고난’에서 발견했다. 수많은 고난이 응축된 정서인 ‘한(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세상을 구원케 하는 선물이라 했다.

이 역설은 백 년 뒤 K-컬처로 결실을 맺었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등이 인류에 선물을 준 것이다. 예를 들어 케데헌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까닭은 단순히 이 작품이 재미와 감동을 주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 속에서 구원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비주류의 삶을 사는 이방인, 사회적 낙인이 찍힌 사람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 드러내기 싫은 치부를 가진 사람들, 씻을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존재 자체가 실수”라고 느끼는 사람들... 이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위로와 치유를 경험한다. 주류에 속해 아무 주름살 없이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자기 안에 있는 그림자를 마주하고 충격을 받는다.

고난을 통하여 형성된 한국인의 집단무의식이 케데헌 곳곳에서 드러난다. 선·악의 대립, 개인 안의 양면성, 구조적 불평등과 개인 책임 사이의 실존적 고뇌, 사랑에서 비롯된 희생과 연대가 악을 이기는 힘이라는 해법, 그리고 이를 해학·노래·춤으로 승화한 문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 된 이유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K-컬처가 세계인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까닭은 십자가의 보편성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죄악 가득한 세상에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고, 악과 직면하시어 그 악을 끌어안고 죽임을 당하셨다. 부활하신 그의 몸에는 흔적(문양)이 남았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예수와 함께 악한 세상 속에서 자기 희생으로 자신과 타인을 구원한다.

둘째, 자신도 기존 질서의 일부임을 깨닫고 통회(痛悔)하는가?

앞서 기존 체제 하에서 고통받는 이와 함께하는 자가 진정한 영성의 소유자라 하였다. 그러나 특권층이 가난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할 때, 그것이 우월감에서 비롯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질문이 가능하다. 또 민중 출신이라도 작은 지위와 권력이 주어지면 다른 이 위에 군림하려 들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금석이 필요하다.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의 영과 교제할 뿐 아니라, 자신의 영이 공동체와 연대되어 있음을 아는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장로 조시마의 입을 빌려 말한다. “형제들아, 스스로 자신을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진실로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순간, 그대는 이미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죄를 개인 범죄가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파괴와 고통에 대한 연대 책임으로 보는 관점이다. 나는 타인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나도 진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정죄하거나 우월감을 느끼지 않고, 자기 성찰로 나아가 용서와 사랑을 선택한다.

영적 회복의 첫 징표는 회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시 51:17) 한국교회는 어려움이 닥치면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습관이 있다. 중국, 신천지, 동성애자, 정부... 희생양을 찾아 차별과 혐오를 쏟아내는 미성숙이 반복된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내면에 자기 의(義)가 자리 잡고 있다.

회개의 반대말은 공로주의(meritism)이다.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공로주의에 빠져 있다. 일생을 바쳐 교회를 개척·성장시킨 늙은 목사는 교회를 자신의 공로로 여기고, 그와 함께 몰락한다. 성도들은 근면과 금욕, 자녀 교육에 힘썼고, 그 결과 우리 교회는 저소득층이 설 자리 없는 중산층 중심의 보수 교회가 되었다. 열심히 기도하여 은혜를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 보니 은혜는 사라지고 물질적 축복만 붙든다. 반공과 시장경제 이념에 잇대어 교회와 국가가 동반 성장했지만, 이제 신앙과 이념이 한 몸이 되어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세상의 죄악, 교회의 죄악, 나의 죄는 서로 얽혀 있다. 나는 마이크로코스모스이며, 내가 곧 한국 교회다. 내가 내 안의 얽힌 죄를 끊어 낸다면, 세상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

그러나 회개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성경 말씀을 이미 자기 방식으로 내면화했고, 기도를 통해 그것을 강화하기 쉽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많이 알고, 큰 소리로 기도할수록 참된 회개와 멀어질 수 있다. 여기서 목상이 필요하다. 깊은 목상을 통해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곧 자기 내면 깊숙이 자리한 욕망이 무엇인지 밝혀 끊어야 한다. 그 욕망의 끝에 기도가 따른다. 기도는 경건의 업적을 쌓는 일이 아니다. 기도는 속에 있는 부패한 생각을 버리기 위한 몸부림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공적 영성은 이 탄식에서 시작된다. 

MEMO